

낙질본 『충렬공명행록』에 대하여

김 동 욱*

차 례

- | | |
|-----------------------|-----------------|
| 1. 서론 | 3) 김광순 소장본 |
| 2. 이본 현황 | 4)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
| 1)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본 | 3. 작품의 경계 |
| 2) 서울대학교 소장본 | 4. 『충렬공명행록』의 특징 |
| | 5.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실전된 한글장편소설 『충렬공명행록』의 경계와 그 내용적 특징을 추정한 것이다. 『충렬공명행록』의 현전하는 이본은 모두 네 종으로,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4권 4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일석문고에 1권 1책, 김광순 소장본 1권 1책, 국립한글박물관에 1권 1책이 소장되어 있다. 『충렬공명행록』은 94권 94책으로 이루어진 이본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94권 94책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대략 29~30권, 내용으로는 소씨 가문의 1대와 2대의 서사는 우순효행담을 핵심 서사로 하고 있었다. 뿌리깊은나무본 1권~4권의 권별 분량은 34,000여자에서 40,000여자로, 94권 94책의 전체 분량은 아마도 319만자에서 최대

* 계명대학교 국어국문학전공 조교수

376만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존하는 최장편 고전소설 『완월회맹연』의 전체 분량인 298만자를 상회하는 방대한 분량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충렬공명행록』은 작품의 주요 사건과 갈등구조, 유사한 삽화의 존재, 역사적인 사건과 주인공 부자의 행동이 유사한 점에서 『완월회맹연』과 가장 비교할 만한 작품이다. 다만 『완월회맹연』이 조선시대 최상층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면, 『충렬공명행록』은 가문의 규모가 단출하고 예법에 대한 의식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여항인이나 실세층의 의식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추가적인 자료가 발굴되어 『충렬공명행록』의 모습에 대해 보다 자세히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충렬공명행록』, 『완월회맹연』, 『소씨명행록』, 한글장편소설,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1. 서론

『충렬공명행록』은 아직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작가 및 창작시기 미상의 한글장편소설이다. 현존하는 이본은 모두 네 종으로,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4권 4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일석문고에 1권 1책, 김광순 소장본 1권 1책, 국립한글박물관에 1권 1책이 소장되어 있다.

이 작품은 현재 완질본이 전하지 않는 작품이다. 그러나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의 “共九十四”표기와 권 별 분량을 살펴보면, 가장 긴 한글장편소설 『완월회맹연』보다도 더 방대한 작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내용도 『완월회맹연』과 상당히 흡사한 측면이 있어, 장편소설 연구에 주목할 만

한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이에 본고는 현전하는 이본들을 모아 사라진 고전소설 『충렬공명행록』의 경계를 최대한 재구해 보고, 작품의 내용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본 현황

1)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본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는 『통렬공명행록』 4책이 소장되어 있다.¹⁾ 책마다 70~80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면은 12행 20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1책당 글자 수는 3만 4천~4만 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은 원래 1~8권의 8책으로 이루어져 있던 저본을, 1권과 2권, 3권과 4권, 5권과 6권, 7권과 8권을 각각 하나로 묶어서 필사한 다음 1권, 2권, 3권, 4권으로 체계를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부터 그렇게 추정한 이유에 대해 각 권의 형태를 살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1권의 표지는 손상이 심해 표제를 잘 알아볼 수 없다. 표지 뒤에 붙어있었던 면지가 떨어져 있는데, 그 곳에는 “통렬공명행록 권지일”이라고 써져 있다. 본문이 시작되는 곳의 내제도 “통렬공명행록 권지일”이다. 전체 63장 중 17장 앞면까지는 이 책을 지은 가상의 기록자 주경성이 이 책을 남기게 된 경위에 대해 서술이 되어 있다.²⁾ 33장 앞면에서 서술이

1) 정명기의 목록에는 2종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이는 1종의 착오로 생각된다. 현재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소장된 『충렬공명행록』은 4책이 전부이며, 이 4책은 1종의 자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바쁜 업무 중에도 필자의 문의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김상현 학예사님께 감사드린다. 정명기,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고소설의 현황과 가치』, 『열상고전연구』 35, 열상고전연구회, 2012, 27쪽.

2) 작품의 본격적인 내용은 17장 뒷면에 내제처럼 “통렬공명행록 권지일”, “빵의상봉합 초구성취록”이라고 쓰여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1대인 소원량과 그의 부인 이씨, 그리고 2대 소경현의 출생에 관한 서술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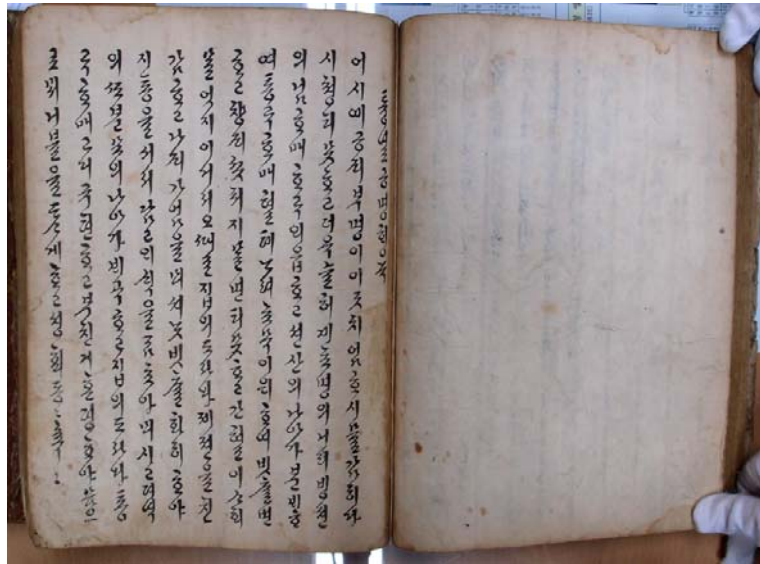


그림 1.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1권의 33b와 34a.

끝나고, 33장과 34장 사이에 종이가 잘려나간 것 같은 흔적이 있다. 그리고 34장부터 “통열공명횡녹”이라는 내제가 다시 나오고 “어시에”라는 말과 함께 앞의 내용이 이어진다. 흡사 2권으로 나누어져 있던 책을 하나로 합쳐 놓은 것 같은 형태이다. 그리고 49장 뒷면부터 소경현에 관한 작품의 서술이 다시 시작되어 63장에서 1권의 내용은 끝이 난다.³⁾ 전체 글자 수는 약 34,000여자이다.

2권의 표제는 “忠烈公明行錄 二”이고, 오른쪽 하단에 “共九十四”라고 적혀있다. 배접된 종이가 표지에 아직 붙어있는데, 틈을 열어 보면 “통열공명횡녹 권지삼”이라는 내제가 보인다. 그렇지만 본문이 시작되는 곳에는 “통열공명횡녹 권지이”라고 하여 내제가 다르다. 모두 69장인데, 29

3)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1권, 49b-50b. 49장 뒷면 중간에 “황의상봉합 호구성취회”, “덩간공년”이라는 내제가 보이고, 소참정 정간공, 즉 소경현을 주인공으로 마치 새로운 작품의 서두를 제시하는 것처럼 인물의 일생을 간략히 요약해 놓은 서술이 나온다.

장 앞면에서 필사가 일단락되고 여백이 있다가 30장에 다시 “통널공명행록”이라는 내제와 함께 본문이 나온다. 30장의 첫 부분은 “설표, 어시애”로 시작해 마치 새로운 권이 시작하는 서두의 문장처럼 되어 있다. 즉 69장의 절반 정도인 30장을 분기점으로 2권의 책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 같은 형태이다. 글자 수는 36,000여자이다.

3권의 표제는 “忠烈公明行錄 三”이고, 역시 오른쪽 하단에 “共九十四”라고 적혀있다. 표지와 분리된 면지에는 “통열공명행록 권지오”라는 내제가 붙어 있고, 본문이 시작하는 곳의 내제는 “통열공명행록 권지삼”이다. 3권도 전체 72장 중 중간 부분인 32장부터 “통널공명행록”이라고 권수가 없는 내제가 다시 붙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70장 앞면에 필사가 도중에 끊어진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71장부터 필사가 다시 시작되지만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아 필사 저본에 무언가 결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 분량은 35,000여자이다.

4권도 “忠烈公明行錄 四”라는 표제와 오른쪽 하단의 “共九十四” 표기가 동일하다. 역시 면지가 뜯어졌는데 그 곳에는 “통열공



그림 2.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2권의 면지. 반쯤 붙어있는 “권지삼”이라는 표기가 보인다.



그림 3. 4권 표지의 “共九十四”

명행록 권지칠”라는 내제가 붙어 있다. 본문이 시작되는 곳의 내제는 “통널공명행록 권지스”이다. 전체 75장의 중간 즈음인 37장에서 필사가 끝나고, 38장에서 “통널공명행록”이라는 권수 불명의 내제와 “차설, 여부인이”라는 문장과 함께 필사가 다시 시작된다. 4권도 7장 뒷면에 필사가 중단되고 8장 앞면에서 필사가 재개되기 전까지 일부 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 전체 분량은 40,000여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자료는 2권이 합쳐져 1책을 이루는 형태를 하고 있다. 아마도 필사자 앞에는 8권 8책의 『충렬공명행록』이 있었던 듯하다. 필사자는 1권과 2권, 3권과 4권, 5권과 6권, 7권과 8권, 이렇게 2권씩 묶어서 1, 2, 3, 4권으로 체제를 바꾸어 필사했던 것이다. 그 근거는 각 책의 중간 부분에 내제가 새로 들어가 있고, 면지에 “권지삼”, “권지오”, “권지칠”처럼 원래 권수의 명칭이 남아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원래 있던 2권을 1권으로 제책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새로 필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각 권의 중간에 등장하는 내제에 2권, 4권, 6권, 8권의 표기가 없다는 점이다. 기존의 책을 단순히 묶기만 했다면 내제에 권수 표기가 남아있을 텐데, 새로 필사하면서 원래의 권수 표기를 없앴기에 권수 표기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둘째, 필사가 중단되어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곳이 3권과 4권에 한 곳씩, 총 두 곳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아마도 필사 저본의 해당 부분이 심하게 훼손되어 내용을 필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정 부분을 여백으로 남겨놓고, 판독이 가능한 부분부터 새롭게 필사를 시작했던 것이다. 요컨대 필사자의 앞에는 훼손 상태가 비교적 심한 『충렬공명행록』 8권이 있었고, 이것을 필사자가 필사하면서 4권 4책으로 묶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충렬공명행록』의 전체 분량은 몇 권 몇 책일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표지의 “共九十四”라는 기록을 신빙하여 순천시

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본의 전체 체제가 94권 94책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共九十四”라는 표기는 필사의 저본에 있던 표기를 그대로 옮겨거나 표지를 재활용한 것이고, 현존하는 이본은 이를 2권 당 1책의 비율로 묶었으니 전체 분량은 대략 47권 정도가 아니었을까 추정할 수 있다.

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표지의 “共九十四” 기록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즉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본의 전체 체제는 94권 94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필사자가 원래 표지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왔거나 표지를 재활용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필사본 소설은 표지의 손상이 더 빨리 일어나는 편이다. 따라서 본문 종이를 재활용하고 표지만 개장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그러니 저본이 있었다면 표지의 손상이 더욱 심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표지는 1권 이외에는 표지의 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표지와 본문 종이의 크기도 잘 맞는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본은 표지와 본문 종이 모두를 새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표지의 “共九十四” 기록은 새로 필사한 필사자가 남긴 기록이므로, 이를 믿지 않을 이유는 없다.

둘째 이유는 작품의 줄거리와 관련되어 있다. 후술하겠지만, 『충렬공명행록』은 소씨 가문의 1대~4대의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서울대본에 발췌된 『충렬공명행록』의 29권 줄거리는 소씨 가문의 1대 인물인 여씨와 관련되어 있다. 만일 전체 권수가 47권에 불과하다면, 29권에서도 1대의 서사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이상하다. 작품의 내용에 관해서는 뒤에서 내용을 살피면서 보다 상세하게 논하기로 한다.

2) 서울대학교 소장본

서울대본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일석문고에 소장된 한글 필사본 1책이다.⁴⁾ 표제는 “忠烈公鈔略”, 내제는 “통렬공명행록”이다. 모두 48장

으로 장정과 종이 상태가 매우 좋고, 필체도 정성껏 쓴 궁체이다. 이 책은 『충렬공명행록』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놓은 자료이다. 표제인 “忠烈公鈔略”에서 말했듯이, 전체 소설의 일부 내용만을 뽑아서 간략히 추려 놓은 것이다. 모두 다섯 부분의 내용을 뽑았는데, 권으로는 1권과 3권에서 한 부분씩, 그리고 4권에서 두 부분, 29권에서 한 부분을 발췌해 놓았다. 서울대본의 권별 구분은 공고롭게도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본의 권별 구분과 일치한다.⁵⁾ 발췌된 부분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권에서는 소씨 가문의 1대 인물인 소원량의 아내이자 2대 주인공 소현경의 생모인 이씨가 병으로 죽자, 소원량의 둘째 동생인 이제(二弟), 그리고 소원량의 처남 이시량이 재취를 권하는 대목이다. 이 내용이 끝난 다음에는 다른 서술 없이 곧바로 3권에서 발췌한 내용이 나온다. 3권에서 발췌한 내용은 2대 주인공 소현경과 혼인한 사마씨가 시부모에게 현구고례를 올리는 장면이다. 소원량이 후처로 여씨를 맞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4권에서는 두 부분을 발췌했다. 첫 번째는 병이 든 공자가 아버지 소원량을 모시고 함께 잠자리에 누워 부자가 정답게 대화하는 대목이다. 교완의 계책으로 여씨가 죄에서 벗어나고, 소원량이 이를 아들에게 전하며 병에서 나으라고 위로하는 대목이다. 두 번째는 소원량이 후처인 여씨 집에 방문하여 장인, 장모와 대화를 나누는 대목이다. 29권에서는 편지 두 통을 발췌해 놓았다. 첫 번째 편지는 여씨의 누이가 여씨에게 보낸 것이고, 두 번째 편지는 며느리 사마소저가 시어머니 여씨에게 보내온 것이다.

발췌는 무작위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서사적인 비중이 높은 부분을

4) 뒤표지 안쪽에 “4289[1956] 1.22. 書籍商 李聖儀 氏로부터 買入, ₩400”이라는 기록이 적혀 있다. 일석 이희승 선생께서 1956년 1월 22일 서적상 이성의로부터 400원에 이 책을 매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1~4권에서 발췌된 내용의 권별 구분은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과 일치하고, 29권은 현존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중심으로 발췌한 것으로 추정된다. 1권에서 발췌한 내용 이후에 소원량은 결국 여씨를 후처로 맞아들이게 되니, 이 장면은 주요 악인 여씨의 등장을 알리는 대목이 된다. 그러니 서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3권에서 발췌한 사마씨의 현구고례 장면 역시 서사적인 비중이 가볍지 않다. 작품의 서사가 시어머니 여씨와 아들 소현경, 며느리 사마씨 사이의 갈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마씨의 현구고례 장면은 여주인공 사마씨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대목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4권에서 발췌한 내용은 여씨가 죄를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가장에게 용서받게 된 연유를 설명하고 있다. 효자인 소현경이 어머니의 출거를 마음 아파하여 병들어 누워버리자 아버지 소원량은 처가에 가서 장인과 장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며 여씨를 다시 용서하고 데려오겠다고 말한다. 우순효행담의 서사 전개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갖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29권에서 발췌한 두 통의 편지가 서사적으로 어떠한 맥락에 위치하는지 알 수 없다. 앞에서 발췌된 세 부분이 모두 서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감안하여 추측한다면, 마지막 29권의 발췌도 서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면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 두 통의 편지는 서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면, 이 지점에서 여씨가 개과천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개과천선하지 않았다면 편지 두 통의 내용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데, 별다른 의미 없이 삽입된 편지 두 통의 전문을 굳이 뽑아 놓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29권은 전체 서사의 분량에 비추어 보아도 분기점이 될 만한 지점이다. 『충렬공명행록』의 전체 서사가 1대 소원량으로부터 4대 소정원(충렬공)의 서사를 다루고 있고,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의 “共九十四” 표기를 신빙하여 전체 분량이 94권이었다고 가정한다면, 29권 쯤에서는 1대 여씨와 2대 소경현, 사마씨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다. 전체 분량 상 29권 즈음에서 여씨가 개과천선하면서 1대와 2

대의 서사가 마무리되고, 30권부터 94권까지는 소씨 가문의 3대 문헌공과 4대 충렬공의 서사가 차례로 다루어지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

3) 김광순 소장본

『(김광순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42권 530~570쪽에 『충열공명행록』 낙질본 1권이 영인되어 있다. 해제에는 “『충열공명행록』은 학계에 처음 공개되는 작품이다. 구체적인 연구는 전혀 없고 다만 金東旭所藏 필사본 『충열전』 11책과 국립중앙도서관소장 『忠烈傳』 1책 등과 이본의 관계인지 별개의 작품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충열공명행록』이란 표제로 발굴된 것으로는 유일본으로 학계의 검토를 거쳐야 할 중요한 작품 중의 하나이다.”⁶⁾라고 언급되어 있다.

김광순본 『충열공명행록』은 어디에도 권수 표기가 없어 몇 권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마지막에 “임인 원월 십사일 종서”라는 필사기가 있는데, 실물을 열람하지 못해 책의 상태를 가늠할 수 없지만 여기서의 임인년은 아마도 1842년이나 1902년 중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광순본은 모두 41장이다. 다루고 있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여씨가 며느리 사마씨에게 누명을 씌워 후원 유리정에 가두고, 사마씨는 14개월 만에 유리정에서 옥동자를 낳는다. 사마씨가 아들을 낳은 날 여씨의 조카이자 첩 여혜랑도 아기를 낳는다. 여씨와 여혜랑은 두 아이를 바꾸고, 사마씨 소생의 아들을 물에 떠내려 보낸다. 또 여씨는 흥한을 시켜 사마씨를 겁탈하도록 하니, 사마씨는 자해를 해 몸을 보전하고 친정에 가 지낸다.

6) 『김광순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42권, 9쪽. 참고로 단국대학교 울곡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을 검색해 보았으나 『충열공명행록』의 이본으로 보이는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모두 『유충렬전』의 이본으로 보인다.

김광순본은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서울대본에서 발췌한 29권 이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마씨가 편지를 보내온 것이 29권이고, 편지에서 시어머니와 떨어져 있다고 했다. 그러니 김광순본의 정확한 권수는 알 수 없지만, 일단 29권 이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권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4)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국립한글박물관에 『□열공명행록』 낙질본 1권이 소장되어 있다. 표제는 “忠列公明行錄”이며, 내제는 “□열공명행록 권지이 □□쌍봉합 호귀성취록”이다.⁷⁾ 전체 70장으로, 내용은 뿌리깊은박물관 소장본 1권의 49b 쪽부터 2권의 41b쪽과 일치한다. 또 책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필사가 남아 있어 눈길을 끈다.

신축 칠월 초오일 총서호노라. 무전한 지쥬 심하고 더위는 고금의 처음인 듯하나 심 〃 적요하여 시죽헌 거시 지리하여 계유 〃 써시나 분이 단문뎡필인디 안흔튜심추망필리 되니 가탄 〃 이라. 오즈와 낙셔 만으니 가석 〃 이나 이만 슈지로 써고 보니 혼심하고 슬픈지라. 뉘계다 전호오고 여는 스텝이 반겨 쥬모호리. 유 〃 창턴아, 츠하인애라. 가소롭다, 턴운이 강쇠하여 세상이 이리 분 〃 소요하니 무어슬 쥬넘호리요. 완명이 지리하여 답 〃 호고 세월리 갈스록 대회예 쥬되와 다줄업는 무션이나 화심장이 여취라 교지 규현이 쥬치 누르지 못홀다.⁸⁾

여기서의 신축년은 1841년이나 1901년일 듯하나 확실하지 않다. 필사자는 더운 여름날 마음이 적적하여 필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리고 세

7) 이 자료는 원래 박순호 소장본이었다가 국립한글박물관으로 소장처가 바뀐 것이다. 조희웅의 사전에는 『충렬공명행록』을 『소씨명행록』과 같은 항목에 포함시켜 놓았으나 두 작품은 다른 작품이다. 조희웅, 『한국 고전소설사 큰사전 25』, 지식출판사, 2017, 238-250쪽.

8) 국립한글박물관본 70a-70b.

상이 어지러움을 개탄하고, 자신의 완명(頑命), 즉 모질게 살아 있는 목숨이 답답하다며 필사기를 끝맺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필사자는 울적한 마음과 시름을 달래기 위해 더운 여름철 이 책을 필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밖의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없다.

3. 작품의 경계

이 장에서는 작품의 경계에 대해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과 서울대본, 김광순본의 내용을 조합하여 살펴보겠다.⁹⁾ 아래는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본에 서술된 전체 작품의 서두 부분이다.

①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1권

『충렬공명행록』은 송대를 배경으로 하고, 주인공 가문은 소씨이다. 1대는 상국 소원량, 2대는 참정 소경현(정간공), 3대는 동평장사 소청유(문헌공), 4대는 소정원(충렬공)이다. 작품의 맨 처음 부분에는 『충렬공명행록』이 기록된 경위에 대한 서술이고, 본격적인 서사는 1대 소원량이 낙향하는 대목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해종도의 초천하야 작위 숭고하야 덕택이 만인의 혼드터니 채경, 당돈 등 모든 국적이 곳 흥하야 텃통을 엄폐하니 경식 날노 어즈럽는지라. 공이 근심하고 분개하야 크게 듯토아 덕절노 징간하니 경, 돈 쇼인의 무리 절토후로하야 드디여 모함하니 일이 불측하기의 밋쳐 놀이 형눅의 당케 되니 자의를 넘어 청탁의 테읍홀시 기세 민석하고 텃해 망국아연하물 이기지 못하터니 일반 군즈의 희석하물 넘어 감스하야 □니의 방귀하시니 드디여 권나디와 썩러진 술위로써 미산 고향의 도라오니...(하

9) 국립한글박물관본의 내용은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과 거의 일치하여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략).¹⁰⁾

소원량이 혜종 때 초천(抄薦)하여 작위가 높아지자,¹¹⁾ 간신배로 잘 알려진 채경(蔡京, 1047-1126)과 장돈(章惇, 1035-1106)이 그를 헐뜯었다. 한편 바로 앞에서는 시대를 송 휘종(재위 1100-1126) 원우(元祐, 1086-1094) 원년(元年)이라고 하였는데,¹²⁾ 원우는 철종(재위 1085-1100) 때의 연호이므로 이 부분은 오류이다. 소원량이 채경, 장돈과 마찰을 빚었다는 말도 있고, 장돈은 철종 때 집권했다가 휘종 때 실각한 인물이므로 시대적 배경은 철종 무렵이 맞다.

소원량은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벌을 받았다가 풀려나 고향인 촉 땅의 미산(眉山)으로 돌아온다. 미산에 돌아온 지 삼 년만에 부인 이씨가 아들을 낳으니 이가 곧 2대 주인공인 소경현이다.¹³⁾ 소경현이 다섯 살 때 어머니 이씨가 병으로 별세하니 나이는 53세였다. 소원량의 동생과 처남이 시랑이 후취를 권하고, 아들 소경현도 조용히 간하니 소원량은 이씨의 상을 마치고 여씨를 후처로 얻는다. 여씨를 후처로 얻게 되는 대목은 서울대본에 첫 번째로 발췌되어 있기도 하다.

10)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1권 18a-18b.

11) 소원량이 혜종 때 초천(抄薦)하였다는 표기도 오류로 보인다. 소원량이 7대 철종(哲宗, 1085-1100) 황제 때 활약했다고 했으니, 그 이전인 4대 인종(仁宗, 1022-1063), 5대 영종(英宗, 1063-1067), 6대 신종(神宗, 1067-1085) 때에 발탁되어야 하는데 혜종이라는 묘호는 없기 때문이다.

12)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1권 17b. 차설 축인 쇼녕원의 즈는 세빅이오 호는 익계지니 기선은 등좌선싱 쇼즈턱이라. 상국 원양의 증손이오 참정 경현의 손이오 동평당스 청유의 직오 축밀스 당제순의 외손이라. 시유작던하니 닉설 선조지디흐매 세세동뉴이라. 휘종 원우 원년이라. 소상국 통선공 원양의 즈는 석빅니 등좌지당즈애라.

13)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1권 20a-21a. 미산 도라온 삼 년의 부인이 홀연 잉티흐니 공이 대희흐야 상해 그 빅를 ㄹㄹ쳐 남즈 엇기를 특원흐매 글오디, “즈금 이후의야 불효 삼천의 무휘 크물 면흐리라.” 흐더라. 밋 히만흐매 이 만세대현이 난지라. …… 그 일흠흐야 경현이라 흐고 즈를 성둥이라 흐여 섹니 당성흐를 기드 리더니 오회라! 시운이 불니흐매 슈단이 유명흐지라.

여씨는 소원량과의 사이에서 삼남일녀를 얻는다. 둘째 재현과 셋째 계현, 넷째 중현과 다섯째 교완이다. 여씨는 극히 똑똑한 인물이어서 늘 공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척하며 친생 자녀들보다 소경현에게 더 좋은 옷과 음식을 주니 모든 친척과 마을 사람들이 칭송한다. 그러나 소원량은 여씨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만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꿰뚫어보고 근심한다.¹⁴⁾

한편 사마현은 소원량의 죽마고우로 역시 채경과 장돈 등 간신배들과의 마찰로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다. 사마현이 소원량의 집에 놀러 와 아들 소경현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여 자신의 딸과 정혼하고 3년 후 혼례를 올리기로 약속한다.¹⁵⁾ 여기서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1권이 끝난다.

②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2권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2권에서는 여씨가 소경현과 사마씨의 혼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 여씨에게는 조카 여혜량이 있었는데, 여혜량은 소경현의 외모를 우연히 훑쳐보고 연모하는 마음을 품는다.

14)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1권 51a-51b. 녀부인은 극히 영혜흔디라. 엇지 되어 혼계교를 내리오? 비록 민즈의 어피로 흐미 이시나 신칭을 모함흐는 계교로 오히려 김초믈 공이 고수의 완흐미 업고 현공의 혼흐미 업스를 두리미러라. 상해 공즈 스랑흐기를 지극히 흐며 친칭즈녀를 그르쳐 왓, “빅으는 소시의 덕태라. 종스의 둥흐미 이시니 너희 무리 엇지 곳흐리오? 당즈와 지즈는 적서지간이라.” 흐여 그 오술 혼 빗희 낚히지 아니흐고 음식을 곳티 주지 아니흐니 친척 향당이 디칭흐디 공이 오직 불열 왓, “사름이란 거시 언실이 이 곳홀디니 츠인의 흐는 배 만히 인정이 아니라 나중이 엇더흐리오? 내 그 말이 빛나고 것출 지으를 근심흐노라.” 흐더라.

15)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1권 59a-59b. 스마공이 쇼왓, “녕냥의 당성흐믈 실노 당가들기 브족디 아니코 아네 쏘 빈혀 쏘기 미쳐시디 조흔 쇼빙이 성인의 경겔분 아니라 선군의 그장 썩리시던 배라. 가혼을 두어 계시니 성동지전은 남취 녀가를 아닛노라. 이제 삼 년을 기다려 함환흐고 네테빙치는 수이 흥흐리라.” 소공이 다시 청티 못흐고 드드여 약혼흐를 곳게 흐고 즐겨 승석흐여 도라가니라.

급스 창의 즈네 당성호고 필녀 헤랑이 녁기 십삼의 풍환무빙이 즈약 다즈호여 당가 태진과 한희 비연의 디나고 즈성이 총으호여 풍뉴곡도의 모를 거시 업고 시지 절등호여 채문희 탁문군의 일니라. 부피 종이호여 턴하의 무가보로 아더니 소공즈의 괴이호를 보고 크게 흠모호여 결혼호를 청호디 소공의 뜻이 진원 곳호니 감히 강청티 못호더니 녀쇼제 소공즈의 모부인을 비형호는 새 규시호고 대경호여 스스로 머리를 버혀 밍세호여 곁오디,

“만일 스뷔 되지 못호죽 단발위리호여 인눈을 사절호리라.”

호고 일야스샹호여 소장을 게얼니 호고 녹기금을 타 국도의 뜻을 브티고 일야의 음난호 가스 십여 편을 지어 음송호여 여광여신호고 속모를 근절이 보체니…(하략)¹⁶⁾

여혜랑은 소경현의 모습에 반해 음란한 가사 10여 편을 짓고, 속모 여씨에게 혼인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보챈다. 여씨는 사마씨와 소경현의 혼사를 방해하기 위해 여혜랑이 지은 음란한 가사를 사마씨가 지었다고 소경현에게 거짓으로 알려준다. 또한 여혜랑은 모친의 산소를 찾은 소경현에게 팔찌를 던지고, 사마부를 방문했다가 밤이 되어 집에 온 소경현의 앞에 나타나기도 하며, 밤에 사마씨 이름으로 된 편지를 방으로 던져 넣는 등 사마씨를 모함한다. 소경현은 여혜랑의 소행을 자신과 정혼한 사마씨의 행위로 착각하고 근심에 빠진다.

한편 여혜랑은 사마씨의 구애하는 편지를 위조하고 계현을 통해 이 편지를 소경현의 소매 속에 넣어두어 어른들에게 발각되도록 흉계를 쓴다. 그러나 소원량은 아들의 소매에서 발견된 편지가 여씨에게서 비롯된 흉계임을 한눈에 꿰뚫어보고 아들을 잠시 산수 유람하라고 내보낸 다음 여씨를 친정으로 쫓아낸다. 소경현은 뒤늦게 어머니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다. 여기서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2권의 내용이 끝난다.

16)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2권 12b-13a.

③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3권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3권에서는 여씨가 쫓겨난 사실을 알게 된 소경현이 어머니를 용서해달라고 소원량에게 간청한다. 소원량이 노하여 아들을 꾸짖는다.

문득 노하여 서안을 박치고 고성 대매 왈,
 “육지 아버 알물 흥모 궂치 하고 스” 소견을 세워 뜻을 즈던하니 무
 슝 도리오? 네 진실노 믿음터로 허라. 내 쏘흔 네 아버 되디 아니리라.”
 설파의 스매를 썰쳐 표연이 나가니 공지 창황망극하여 머리를 두드려
 미련흔를 사죄허디 공이 드른 체도 아니코 썰니 나가니 공지 착급허야
 조차 쓰른대 공이 도라보고 녀성 왈,
 “육지 어느 늦츠로 날을 좃츠뇨?”¹⁷⁾

소경현이 계속 어머니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자 아버지 소원량은 대노하여 아들을 꾸짖고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자 한 달 만에 소경현은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들어 쓰러진다. 소원량이 어쩔 수 없어 여씨를 다시 돌아오게 하니, 소경현은 십여 일만에 쾌차한다. 이후 소경현과 사마씨의 혼례가 이루어지고, 이튿날 사마씨는 시부모에게 현구고례를 올린다. 현구고례를 올리는 대목은 서울대본에도 발췌되어 실려 있다.

여씨는 사마씨를 자기 방으로 부르고 여혜랑을 신방에 대신 넣어 두나, 소경현이 의심하여 팔짱만 끼고 앉아 밤을 지새우니 여혜랑의 계교는 실패로 돌아간다. 여씨는 독한 마음을 품고 병으로 누워 있는 친생자 종현을 이용해 소경현을 모함한다. 소경현이 종현의 병을 구완하고 있었는데, 소경현이 주는 약에 독을 타 종현을 죽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소원량은 이것이 여씨의 흉계임을 꿰뚫어본다. 여씨는 자신이 의심을 받자 목을 매어 자결하려고 하지만 실패한다. 얼마 후 소원량의 약을 며느리 사마씨가 달이는데, 여씨는 계현을 시켜 약에 독을 타 사마씨가 의심받

17)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3권 5a-5b.

도록 하지만 실패한다. 여기서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3권이 끝난다.

④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4권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4권에서는 여씨가 교완의 간언과 계책을 들어 소량에게 죄를 뒤집어씌운다. 소원량이 이를 공자에게 전하고 여씨에게 죄가 없음을 말해주니, 소경현은 병에서 회복한다. 이후 금의 침공으로 송나라가 위기에 빠진다.

차설, 정간 이년이라. 금회 창궐하여 종새 위망하니 거개 □월하여 농예 북항하시고 간신이 침역하니 디송 수백년이 일도의 망하여 종새 견용의 립박흔 배리니 일세 통○[신]군즈와 방가세신, 의협널식 드토와 님 절취스하니 ... 초의 공이 집을 하딕하매 오직 스묘의 총〳이 통곡 비별하고 척검을 집혀 일필 건너를 잇그으려 항하매 유치 스매를 잡아 고〳히 통곡하나 칼홀 드러 잡은 거술 씻츠며 이지호통하여 뒤홀 조츠디 물머리를 두루혀 보디 아니하더니 공직 도보하여 뒤홀 조츠미 일순의 밋 첫는디라.

일노브터 공이 천계 빅방으로 이데를 조차 동서남북의 표박하매 구치와 거갈이며 위란과 참익이 능히 천서만단이로디 공즈의 출턴흔 성효와 공의 개세흔 통널노빠 텃디신명이 감으하여 못츄내 통널을 빗니고 효의를 고죽이 하여 신여명이 구천하니 허다 탁이흔 스적과 슈공으로 더브러 북적을 터 봉공하기의 니른 설화는 싸히니라.¹⁸⁾

위 인용문에서는 금의 침공이란 송의 휘종, 흠종이 포로가 된 1126년의 정강지변(靖康之變)을 가리킨다. 황제가 북으로 끌려가자 소원량도 집을 떠나 황제를 따르러 간다. 아직 어린 나이였던 소경현은 걸어서 부친을 따른다. 소원량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소경현은 몰래 부친을 따라 끝까지 함께 한다. 그 이후에 부자가 동서남북을 떠돌면서 고생한 이야기며, 나중에 금을 정벌해 공을 이룬 이야기는 뺐다고 했다. 여기서

18)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4권 68a-73b.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4권이 끝난다.

⑤ 김광순본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4권 이후의 내용이 가장 가까이 이어지는 것은 김광순본으로 추정된다. 김광순본의 서두는 여씨가 며느리 사마씨를 해치려고 자신의 탕약에 독을 탄 다음 사마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대목으로 시작한다.

화설, 녀시 양병득의호여 빅계로 스마시을 잡으려 쥬소의 맛을 탁 양치 못호더니 스마씨 약을 달혀 여씨게 드리니 여씨 바다 압히 노코 스미 속으로 독약을 닌여 탕약의 너허 든금시네 약 그라시 썬여지며 불 곳치 창둥호니 좌우 실식호고 부인이 디로호여 스마씨을 스죄로 지으려 호니 지현과 교완니 지성으로 간호여시나 더욱 노호여 친히 구타호야 머리 썬야지고 썬 바아지도록 고척호여 후원 유리덩의 가두니 스마시 비옥 무죄이 갖치나 스식이 타연호고 이 말리 스마부의 가지 못호니 디 현이로다. 교완소저 쥬야의 썬나지 아니터라. 스마씨 잉티호 십스월만의 유리덩의셔 히만호니 일기 옥동괴린을 탄싱호니 일기 환희호고 지현 남 락 환널호미 측양잇시리오만는 여부인의 시심은 더욱 불 곳더라.¹⁹⁾

여씨가 사마씨를 후원 유리정에 가두니, 사마씨는 잉태한 지 14개월만에 유리정에서 옥동자를 출산한다. 마침 여혜랑도 같은 날 약간 늦게 아들을 출산한다. 사마씨는 15일 자시에 출산하고 여혜랑은 15일 축시에 출산한 것이다. 교완 소저가 ‘적서(嫡庶) 분의(分義)’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²⁰⁾ 여혜랑이 끝내 주인공 소경현의 첩으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19) 『김광순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42권, 530-531쪽.

20) 『김광순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42권, 547-548쪽. 대개 스마시 쇼저는 십오일 즈시의 싱즈호고 혜랑은 십오일 특시에 싱즈호니 분명이 형대를 불변홀 거시로디 부인이 공교호 의스를 내여 스마쇼제 분명이 즈시의 분만호를 알고 이리 니르미니 쇼제 그 쓰줄 알고 쇼왈, “연죽 이 아히 분명 형이로소이다. 스마형이 분만호니 바야호로 즈시 말직이니 혜건디 이 아히는 즈시 초직인가 시부

여씨는 사마씨 소생의 아이와 여혜랑의 아이를 바꿔치기한다. 그리고 사마씨 소생의 아들은 죽여 버리려 한다. 그렇지만 사마씨 소생의 갓난 아이를 우물에 던지자 우물물이 말라 버리고, 화롯불에 던지자 화롯불이 꺼져버린다. 아기는 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잔인하고 사악하다며 꾸짖는다.

한편 소경현은 누이동생 교완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바뀌었으며, 몸 위에 표점이 있다는 말을 듣는다. 한편 여씨가 도적을 시켜 며느리 사마씨를 겁착하게 하니, 사마씨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눈과 코, 귀를 베고 오른팔을 끊어 병신이 되어 친정에 가 머무른다. 여씨는 사마씨 소생의 갓난아기를 못에 버렸는데, 누군가 이 아기를 건져 내어 잘 기른다. 사마씨는 친정에 머물러 있으면서 꿈을 통해 자기 아들이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며 무사히 지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김광순본의 내용은 여기서 끝난다.

⑥ 서울대본에 발췌된 29권

김광순본 다음은 서울대본에 발췌된 『충렬공명행록』 29권의 내용이 이어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대본은 “통녘공명행록 권지이십구”라는 내제와 편지 두 통을 발췌해 놓았다. 첫 번째 편지는 여씨의 언니가 여씨에게 보낸 것이고, 두 번째 편지는 며느리 사마소저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시어머니 여씨에게 보내온 것이다.

스마상국부인 녀시 소상국 부인 녀시게 혼 셔의 왈, 대개 왈,
 “정모흔는 가온대 옥찰을 어드니 청안으로 조차 은혜롭고 다형키를
 이기랴. …… 원컨대 어진 아은 턴디의 냥을 드리오고 우로의 무스흐므
 로 뼈 우형의 구” 혼 쓰들 슬피고 불초식의 민축흐물 인흔 즉 니른바

니 형데는 난치 못홀 거시오 덕셔는 분의 엄절흐니 원간 두 아히 혼 날 혼 시의
 나시니 실노 분별키 어렵고 냥아 다 스마 형의 아달이라 츄으를 쏘 스마시를 주
 어 양혹흐야 타일 대인과 빅형이 도라와 고훈여 종스를 덩흐미 울흐이다.”

풍상이 싱초목지심이니 우리 모네 불초불인하나 엇디 감격슈보를 어그
룻티리오.”

헛엇더라. 부인이 남파의 탄식 수성 옥설의 취식이 은연하니 비컨대
강도일지춘풍의 교약함미러라. 날호여 식부의 글을 보니 고투시디,

“불초부 스마오는 계슈빅비하고 읍혈경공하야 상셔우존고 위국군부
인 죄담하하나이다. …… 정의를 금티 못하오니 거화여심이 정빅이 여상
소실하와 상셔를 밧드러 스의 호란실츠하오니 더욱 스죄 〃 로소이다.”²¹⁾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은 여씨의 언니이자 사마상국 부인인 여씨가 동
생을 타이르는 내용이다.²²⁾ 여씨는 읽자 몇 차례 탄식하며 부끄러운 빛
이 얼굴에 은연히 나타났다고 하였다. 다음 편지는 며느리 사마씨의 편
지이다. 내용을 보면 사마씨가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부득
이 떨어져 지내는 것을 사죄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편지의 내용으로 미
루어 볼 때 『충렬공명행록』 29권의 내용은 김광순본보다 이후에 위치한
다고 추정할 수 있다. 김광순본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마씨가 자해를 한
뒤 친정으로 돌아가 몸조리를 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본에서 발췌된 내용이 서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점일 가능성을
고려해 조금 더 추정을 해 본다면, 이 부분은 아마도 여씨의 개과천선이
이루어지는 대목일 가능성이 있다. 언니의 편지를 읽고 부끄러운 빛을
띠었다는 서술이 그러하다. 며느리가 집을 떠나 있는 처지를 사죄하는
편지를 보냈으니, 다음 부분에는 여씨가 개과천선하고 며느리 사마씨가
집에 돌아오게 되는 서사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1대와
2대의 서사는 29권에서 30권 즈음에서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충렬공명
행록』의 전체 분량을 94권으로 가정한다면, 소씨 가문의 4대에 걸친 서
사 중에서 1대와 2대의 서사가 30권 즈음에 마무리되는 것이 합리적이

21) 서울대본 38a-48b.

22) 낙질본이어서 단정하기 이르나, 사마상국 부인인 여씨는 소경현의 부인 사마씨
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있다. 즉 여씨 자매는 친동기간이자 사돈지간인 셈이다.
이 점에 대해 지적해 준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기도 하다.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살펴보았을 때, 여씨의 개과천선이 『충렬공명행록』 29~30권 즈음에서 일어나고 30권 중반 이후는 작품의 내용이 다음 세대의 서사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⑦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1권 서두의 요약

이후 서사는 소경현의 아들이자 태어나자마자 악인을 꾸짖었던 갓난 아기 소청유와, 소청유의 아들이자 ‘충렬공’으로 일컬어지는 4대 주인공 소정원을 주인공으로 하였을 것이다. 이 부분은 현재 남아있는 자료로서는 추정이 불가능하다. 다만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1권의 서두에 『충렬공명행록』의 소정원 관련 서사가 간략히 요약되어 있다. 이를 통해 소청유와 소정원의 서사를 부분적으로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

공이 처엄의 불행하여 그 집의 난이 있는지라. 상국 군부인 당시 공을 잉하고 삼월의 복둥의 품고 처엄의 도경하여 강을 건너 선세 구엄의 숨어 공을 탄싱하니 시는 건드지간성즈 춘삼월 십오일 진시라. …… 공이 수삼 세에 지각이 명투[특]하니 나가 들희셔 노다가 측연이 즐기지 아니커늘 부인이 문기고하니 디왈

“사름마다 어버이 그자 서로 부모를 부르거늘 아히 홀노 부친을 보지 못함미 엇진 연피니잇가?”

부인이 문득 소셔 날오되

“네 엄군이 나라히 브러시를 바다 원방의 이시니 네 복둥의 이실제 씨나미라.”

하니 문득 슬히 떼음하고 …… 스스로 가명 두어홀 드려 천니의 반섭하여 가엄을 츠줄시 시의 문헌공이 초면을 만나 몸의 계육하고 일흠이 악역의 미이니 국인이 가위하여 분연이 슬허하고 텃해 분석하기 어려워 므츄니 현늑의 밋쳤더니 공이 텃문의 복을 울너 만세를 석등하여 문져 디스하기를 빌매 성취 감동하시고 만되 격절하니 이제 공의 나히 비로소 칠세 첫 봄이라.²³⁾

23)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1권 6b-8a.

위 인용문의 공은 4대 주인공 소정원이다. 3대 주인공 소청유의 부인 장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난리를 만나 강을 건너 선조의 무덤에 숨어 아들을 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정원이 어릴 때 부친 소청유가 무슨 일에 얽혀 유배되었던 듯하다. 소정원은 일곱 살의 어린 나이로 하인 두어 명과 더불어 천리를 떨어져 있는 아버지를 만나고, 복을 올려 황제로부터 용서를 받아냈다. 이후 스스로 간인의 정적을 탐지해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무고함을 입증했다는 서술이 이어진다.²⁴⁾

이후 다시 세월이 흘러 2대 소경현(정간공)과 3대 소청유(문헌공)이 차례로 죽는다. 2대 주인공이었던 정간공 소경현이 죽자, 아들 소청유 또한 슬픔으로 양상하게 말라 목숨이 위태로워졌다. 그러자 소청유의 아들 소정원이 주공을 본받아 다섯 번 살을 깎아내어 부친을 살려내어 큰 효를 보였다. 그러나 끝내 소청유가 죽자 소정원 또한 거의 죽기에 이르렀다가 살아나 모친 장씨를 모셨다.²⁵⁾

이후 소정원이 무슨 일로 십 년을 바닷가 남해 지역에 유배되었다. 유배되어 지내는 동안 남해 지역이 교화되고, 황제는 소정원을 용서하였다.

드디어 은신 사세하여 봉우의 교점우 굿피 손을 보지 아니코 혼업을 기리 저버려 다만 즈부인을 효양하여 오 년을 세상의 즐기물 니르지 아니하여 질추 반의 〃 회 아니면 불현계치하더니 상국군 부인이 천년을 다하시매 슈장을 입의 너치 아니하고 삼월의 일야호극이혈하여 편각을 불털지성이러니 양네를 일우매 겨요 시제을 못고 인하여 묘축의 나아가

24)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1권 8a-8b. 일세인이 드토아 문헌공의 기특한 효를 잡고 저 홀식 드디어 그 위턱하물 풀고져 하나 근본을 좃지 못하느니라. 공이 즈원하야 간인의 정적을 츠즈를 덩탈하거나 수월노심초스하야 이목이 트고 슈족의 턴이 나며 입이 스 〃로 □고 트면 물고 므른 목을 적시고 호화한 소리를 듯지 아냐 기특한 지혜와 신기하 직조로 간인을 잡아 도라오니 비로소 문헌공의 죄명이 헛된지라. 드디어 옥곳치 벗고정 〃 하니 그 가운데 성효의 완전하미 즈고의 듯디 못하 배라.

25)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1권 8b-11a.

매 새배로부터 어음식지 드디어 진하니 그 절극슈진하니 오십일이라.
 …… 선상의 시모는 휘절의 념으디 오직 인누를 지연하야 즈브흐른 곳
 상네를 단하야 구로지은을 갑습고 즈모를 위하야 즈하의 우를 끼치지
 아닐 썸 아니라 나라홀 위하야 브디 훈업을 일워 사덕을 위하야 붓드러
 남군을 갑고져 험미러니 후상의 밋치는 뜻이 업는고로 스”로 죽으미
 라.²⁶⁾

유배에서 풀려난 소정원은 모친을 봉양하며 숨어 지낸다. 그러다가 모친 장씨가 천수를 다하자 소정원은 몹시 슬퍼하다가 결국 죽고 만다. 이에 공의 시호를 충렬이라 하였다. 그리고 충렬공의 효행을 주경성이라는 가공의 서술자가 기록으로 남겼다.²⁷⁾

앞에서 정리된 충렬공 소정원의 서사는 일단 거의가 효행과 관련되어 있다. 일곱 살의 어린 나이로 황제에게 직접 호소해 부친을 풀려나게 하였고, 부친이 숨을 거두려 하자 살을 베어 구하려고 했다. 마침내 아버지가 죽자 자신도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다시 목숨을 부지했다. 이후 남해 지역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다음에는 어머니를 모시며 5년 간 지내다가 모친상을 당하자 너무 슬퍼한 나머지 따라 죽었다는 서술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 줄거리는 이 작품이 주인공의 ‘효행’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서술되었다는 경위를 기록하는 맥락에서 기록된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소원량과 소경현의 서사에도 여혜랑이 등장해 온갖 흥계를 꾸미는 것처럼, 이후의 서사에서도 주인공의 혼인과 처첩, 종통갈등 등의 서사가 풍부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현재까지 발견된 자료로는 추정이 불가능하다.

26)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1권 11a-13a.

27) 후세인이 시를 끼쳐 늦길재로나 만일을 기록고져 하니 주경성이 흑문이 졸누하야 단하지 못하니 그 찬집하니 썸 사름을 잊지 못하얏도다 효자7 텃하인의 본이라. 그 효의 허하염죽흔 자의 밋츠리오? 평싱 혼행을 싱각하매 더욱 탄복석절하니 넘으매 뉴테하야 그 초를 대강 기록하니 세세극절은 임의 일시 헝녹의 일” 하니 경성은 다만 고루하므로써 대략을 쓰노라.

4. 『충렬공명행록』의 특징

앞 장에서 『충렬공명행록』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추정해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토대로, 한글장편소설 중에서 『충렬공명행록』과 견주어 볼 만큼 비슷한 작품을 찾는다면 가장 먼저 『완월회맹연』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근거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작품의 주요 사건과 갈등구도가 『완월회맹연』과 유사하다. 『완월회맹연』의 핵심갈등은 계모인 소교완과 효자 정인성, 효부 이자염 사이에서 일어난다. 소교완은 작품의 으뜸가는 악인으로서 자신의 친생자인 정인중이 정씨 가문의 종통을 계승하기를 바란다. 이에 온갖 수단을 동원해 주인공 정인성과 이자염 부부를 해치려 든다. 그러나 정인성과 이자염은 지성으로 소교완을 섬기고, 마침내 소교완은 개과천선한다. 『완월회맹연』의 경우 작품의 전체 서사가 ‘우순효행담(虞舜孝行談)’²⁸⁾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충렬공명행록』은 1권에서 30권까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내용 역시 우순효행담에 속한다. 『충렬공명행록』에서 갈등의 핵심 인물은 소원량의 후처이자 계모인 여씨와 효자 소경현, 효부 사마씨이다. 여씨는 악인의 핵심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해치려 든다. 그러나 소경현과 사마씨는 효로 어머니를 섬긴다. 한글장편소설의 관습 및 서울대본 『충렬공명행록』 29권의 발췌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여씨 또한 마지막에는 개과천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충렬공명행록』의 경우 1대와 2대의 서사가 우순효행담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충렬공명행록』과 『완월회맹연』의 주변 인물들도 유사한 측면이 많다. 『완월회맹연』에서 주인공의 부친 정잠은 선인형 인물이자 통찰력이

28) 우순효행담(虞舜孝行談)은 중국의 순(舜) 임금의 어리석은 아버지 고수(瞽瞍)와 악한 계모, 이복동생의 꾀박에도 효제(孝悌)의 도리를 다하여 마침내 그들을 감화시켰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내용이다.

뛰어나 소교완의 흉계를 모두 꿰뚫어본다. 소교완의 친생자는 정인웅과 정인중 두 명인데, 정인웅은 선인형 인물로서 주인공 정인성과 이자염 부부를 지성으로 도와준다. 반면 소교완의 또 다른 친생자 정인중은 악인형 인물로서 소교완과 더불어 주인공 부부를 해치는 흉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소교완의 종질인 양소저는 훗날 정인성의 첩으로 들어와 소교완과 작당하여 선인형 인물들을 해친다.

『충렬공명행록』에서도 부친 소원량은 선인형 인물이자 통찰력이 있어 여씨의 흉계에 넘어가지 않는다. 여씨의 친생자녀로는 소재현과 소계현, 소교완이 있는데, 소재현과 소교완은 선인형 인물로 소경현과 사마씨 부부가 위기에 처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한다. 그러나 소계현은 악인형 인물로 모친 여씨와 함께 주인공 부부를 모해하는 데 앞장선다. 여씨의 조카 여혜랑이 소경현의 첩으로 들어와 집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점도 동일하다. 이처럼 『충렬공명행록』과 『완월회맹연』은 핵심갈등을 이루는 인물뿐 아니라 주변인물의 구도도 상당히 흡사하게 이루어져 있다.

둘째, 유사한 삽화가 존재한다. 『완월회맹연』에서 이자염이 아이를 낳자 소교완은 아기를 바꿔치기하고 정인중을 시켜 죽이도록 한다.

닌중이 용약하야 장춧 죽이려 흘시 절학중봉의 디턱이 잇셔 슈세 흥
용하여 프른 물결과 거른 물 빗치 보기의 흥흔지라. 닌중이 시험하여 희
즈를 집어 그 못 가온디 드리치미 뇌진이 은은하고 물결이 더욱 흥용하
더니 경각의 그 물이 다 마르고 희지 완연이 마른 못 속의 누엇는지라.
닌중이 디경하여 갈오디,

“이논 하늘이라. 엇지 이리 요약하뇨. 인중승천이라 일척 강보를 너
현마 니끼지 못하리오.”

하고 장춧 칼흘 썩혀 강보를 지르려 하니 아히 흘연 말하여 갈오디,
“심의라, 여츄 존적지인(殘賊之人)이여. 상데 날노 하여금 군즈 숙녀
의 덕을 도오라 하시니 네 엇지 날을 간덕로 잔학하리오. 천지 신지하니
네 몸의 양화 두립지 아니냐.”²⁹⁾

정인중이 갓난아기를 큰 못에 던지자, 순식간에 그 연못의 물이 모두 말라버린다. 정인중이 크게 놀라 칼로 아기를 찔러 죽이려 하자 아이는 홀연 입을 열어 ‘심하도다, 이와 같이 사람이 잔인하다니.’라며 정인중을 꾸짖는다. 정인중은 결국 아기를 칼로 찌르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높은 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던져버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김광순본 『충렬공명행록』에도 이와 흡사한 장면이 있다. 사마씨가 아이를 낳자 여씨는 시비를 시켜 여혜랑의 아기와 바꿔치기한다. 그리고 바꿔 온 사마씨의 아기를 죽이려 하자 아기는 여씨와 시비를 꾸짖는다.

노쥬 보 〽 전경호야 누리덩 후면의 오십보 밧긔 혼 우물리 잇셔 근원 이 깊고 슈세 측양치 못호는디 죠슈 일죽 저 브야호로 창일호니 당부라도 혼 번 쉐러지미 텡분과 녀늑이라도 가이 살기 어렵거든 부인의 심술 이 식호의셔 심호야 히즈를 썬 섬을 썬겨 텡둥의 드리치고 텡히 거름을 두루혀고져 호더니 문득 벽녀 혼 소리 바로 머리 우호로 다히니 섬이 놀나 기절호고 부인니 썬 경황호야 두어 거름을 무로 도라셔니 다시 고 요호야 아모 소리도 업고 다만 아히 우름소리 고 〽 호니 하 고희호여 나 아가 보니 히즈 텡던 반석 우히 누어 크게 우는지라. 부인니 텡경호야 보니 텡둥이 일시에 말나 혼 점 물이 업는지라. …… 크게 놀나 부지불 각의 늑내 썬희 더지니 아히 셔벽 하의 느려지며 홀연 위연 왈,
“심의라, 츠하비여. 잔혹디능불인이라. 하하호츄오.”³⁰⁾

여씨가 유리정 뒤의 깊은 우물에 아기를 던지자, 벼락이 치면서 연못 물이 순식간에 말라 버린다. 여씨가 크게 놀라 아기를 던지자 갓난아기는 입을 열어 ‘심하다, 이 어떤 무리인가. 능히 불인(不仁)한 행위를 할 정도로 잔혹하도다. 어찌 이와 같이 포악한가.’라며 여씨와 시비를 꾸짖는다.

29) 김진세 독해, 『완월회맹연』 4권,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230-231쪽.

30) 『김광순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42권, 531-536쪽.

많은 한글장편소설에서 주인공 가문의 주요 인물들은 나이에 무관하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엔 하지만,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갓난아이가 자신을 해치려는 악인을 ‘심하다.’라며 꾸짖는 것은 그리 흔한 장면이 아니다.³¹⁾ 『완월회맹연』과 『충렬공명행록』에 등장하는 이 장면은 두 작품 사이에 모종의 영향관계를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흡사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외에도 며느리 사마씨가 자신을 독약으로 죽이려 했다고 여씨가 모함하는 대목도 『완월회맹연』의 소교완과 이자염 사이에서 흡사하게 나타난다.³²⁾

셋째, 역사적인 사건과 주인공 부자의 행동이 유사하다. 『완월회맹연』은 명의 영종 대를 배경으로 한다. 영종은 1449년 토목지변(土木之變)으로 마선(원래 명칭은 예센)의 포로가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정잠은 황제를 구하기 위해 마선에게 가고, 아들 정인성 또한 외지를 떠들다가 부친을 찾아가 상봉한다. 부자는 마선 지역의 험지에서 온갖 고생을 겪으며 수년간 버티다가 마침내 황제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다.

『충렬공명행록』은 뿌리깊은나무박물관 4권에서 송의 정강지변을 다루고 있다. 해당 설화를 뺀다고 하여 무척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으나, 역시 송의 휘종과 흠종이 포로로 끌려가자 주인공 부자가 그 곳으로 따라가 고생을 함께 한다. 황제가 오랑캐의 포로가 된 점도 같고, 아버지가 먼저 황제를 모시러 오랑캐 지역으로 가고 아들이 뒤따라가 부자가 함께 고난을 겪다가 돌아오는 점 또한 유사하다.

이처럼 『완월회맹연』과 『충렬공명행록』은 유사한 점이 많지만 차이점도 물론 있다. 주요 차이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충렬공명행록』은 주인공 가문의 위상이 『완월회맹연』만큼 높지 않다.

31) 필자가 과문한 탓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본 한글장편소설 중에서 『완월회맹연』과 『충렬공명행록』 이외에는 이와 같이 갓난아이가 악인을 꾸짖는 장면을 접하지 못하였다.

32) 유사한 사건이 『성현공숙렬기』에도 보이고, 악인형 인물이 ‘여씨’인 점도 같으나 작품 전체적으로 볼 때 『완월회맹연』만큼 유사하지는 않아 보인다.

『완월회맹연』은 작품의 서두부터 명문거족으로 등장한다. 주인공 가문의 가장 어른인 정한은 황제의 총애가 으뜸이며, 100명에 이르는 제자가 있고, 구빈관을 지어 빈민을 널리 구제했을 정도로 명망이 높은 인물이다. 정한의 아들이 정잠과 정삼이고, 주인공 정인성은 정삼의 친생자로 정삼의 양자가 되어 종통을 잇는다. 이와 달리 『충렬공명행록』의 소씨 가문은 규모가 다소 단출하다. 소씨 가문의 1대인 소원량은 채경, 장돈 등의 모함을 받아 형을 당하고 있다가 간신히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다. 즉 소원량은 중앙관직에서 밀려나 홀로 낙향하였으며, 다른 형제도 없다. 소씨 가문의 형세는 『완월회맹연』의 정씨 가문에 비해 훨씬 더 위축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주요 인물의 형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완월회맹연』은 인물 형상이 훨씬 더 엄격하고 예법에 맞는 편이다. 『완월회맹연』의 정삼은 소교완의 흉계를 꿰뚫어보고 동요하지 않으며, 예에 어긋난 행동은 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런데 『충렬공명행록』은 가부장의 인물형상이 다소 가볍게 묘사되어 있다. 아버지 소원량은 아들이 어머니를 용서해 달라고 거듭 간청하자 “육지 아비 알물 흥모 궂치 하고 스” 소견을 세워 뜻을 즈던하니 무슨 도리오? 네 진실노 믿음디로 흐라. 내 쏘흔 네 아비 되디 아니리라.”³³⁾라고 한다. 도리에 맞는 간언을 하는 아들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네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는 식의 극단적인 발언을 내뱉는 것은 예법에 대한 의식이 엄격한 『완월회맹연』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요컨대 『완월회맹연』은 가문이나 예법, 인물형상 측면에서 최상층의 향유의식을 드러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한길연의 선행연구에서도 『완월회맹연』은 “예법을 철저히 고수”하고 “가문중심의 세계를 강조”하는 등 “상층 집권층의 이념적 확신과 선민(選民)으로서의 자부심을 주로 형상화한 소설”로 평가된 바 있다.³⁴⁾ 즉 『완월회맹연』의 주된 관심은

33) 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3권 5a.

“가문의 번영을 지속해 나가는 것”으로서 “안정기에 접어든 상층 사대 부 가문의 고민을 담고 있다.”³⁵⁾고 말할 수 있다.

『충렬공명행록』은 『완월회맹연』만큼 최상층의 향유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예법을 엄정히 지키려는 면모도 약하고, 가문의 위세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여항인적 의식과 세태 묘사”를 보여주는 『창란호연록』이나, “상층 실세층의 방황과 고민”을 보여준다고 평가된 『옥원재합기연』에 보다 가까운 모습이다.³⁶⁾ 다만 작품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충렬공명행록』의 의식성향을 명확히 단정 짓기에는 이른다.

5. 결론

지금까지 『충렬공명행록』의 경개와 그 내용적 특징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본고가 밝혀낸 점은 아래와 같다.

뿌리깊은나무본 『충렬공명행록』은 94권 94책으로 이루어진 전체 분량의 일부로 판단된다. 그리고 권수를 기준으로 할 때 대략 29~30권, 내용으로는 소씨 가문의 1대와 2대의 서사는 우순효행담을 핵심 서사로 하고 있었다. 핵심 갈등은 주인공 가문의 계모 여씨와 효자 소경현, 며느리 사마씨 사이에서 일어난다. 뿌리깊은나무본 1권~4권의 권별 분량이 34,000여자에서 40,000여자였으니, 94권 94책의 전체 분량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319만자에서 최대 376만자가 된다. 이는 현존하는 최장편 고전소설 『완월회맹연』의 전체 분량인 298만자를 상회하는 방대한 분량

34)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5, 185-186쪽.

35) 김동욱, 「『임화정연』의 추남 주인공에 대하여」, 『영주어문』 47, 영주어문학회, 2021, 277쪽.

36) 한길연, 앞의 논문, 181-184쪽.

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충렬공명행록』은 분량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완월회맹언』과 가장 비교할 만한 작품이다. 작품의 주요 사건과 갈등구조, 유사한 삽화의 존재, 역사적인 사건과 주인공 부자의 행동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완월회맹언』이 조선시대 최상층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면, 『충렬공명행록』은 가문의 규모가 단출하고 예법에 대한 의식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여항인이나 실세층의 의식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추가적인 자료가 발굴되어 『충렬공명행록』의 모습에 대해 보다 자세히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통열공명행록』 4권 4책,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통널공명행록』 1권 1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일석문고.
『충열공명행록』 1권 1책, 『김광순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42권, 박이정, 1998.
『□열공명행록』 1권 1책, 국립한글박물관.
- 김동욱, 『『입화정연』의 추남 주인공에 대하여』, 『영주어문』 47, 영주어문학회, 2021, 259-285쪽.
김진세 독해, 『완월회맹연』 4권,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정명기,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고소설의 현황과 가치』, 『열상고전연구』 35, 열상고전연구회, 2012, 9-31쪽.
조희웅, 『한국 고전소설사 큰사전 25』, 지식을만드는지식, 2017.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5, 1-276쪽.

<Abstract>

A Study on Lacking Volumes of
『*Chungryulgongmyeonghaengrok*』

Kim, Dong-Wook*

This paper researched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novel *Chungryulgongmyeonghaengrok*. There are four existing copies of *Chungryulgongmyeonghaengrok*, with four volumes and four books at the Suncheon Municipal Museum, one book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one book owned by Kim Kwang-soon, and one book at the National Hangeul Museum. It is estimated that there existed a copy consisting of 94 volumes *Chungryulgongmyeonghaengrok*. Approximately 29 to 30 volumes of 94 volumes,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of the So family had the story of filial piety as the core narrative. It is estimated that the total volume of *Chungryulgongmyeonghaengrok* was probably between 3.19 million to a maximum of 3.76 million characters, with 34,000 to 40,000 volumes per volume. This is noteworthy in that it is a vast amount of more than 2.98 million characters, the total amount of the existing longest classic novel, *Wanwolhoemaengyeon*.

Chungryulgongmyeonghaengrok is the most comparable work to *Wanwolhoemaengyeon* in that the main events and conflict structure of the work, the existence of similar illustrations, and historical events and the actions of the protagonist and his father are similar. However,

* Keimyung University.

if *Wanwolhoemaengyeon* reflects the consciousness of the uppermost class of the Joseon Dynasty, *Chungryulgongmyeonghaengrok* seems to reflect the consciousness of female and influential people to some extent in that the size of the family is simple and the consciousness of etiquette is not thorough. It is hoped that additional data will be discovered in the future to reveal in more detail the appearance of *Chungryulgongmyeonghaengrok*.

Key Words: *Chungryulgongmyeonghaengrok*, *Wanwolhoemaengyeon*, *Sossimyeonghaengrok*, Korean Novels, Suncheon Municipal Museum.

■ 논문접수 : 2022년 02월 19일
■ 심사완료 : 2022년 04월 18일
■ 게재확정 : 2022년 04월 21일

